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우리가 머물렀던 곳의 정확한 이름은 "수빅 홀리데이 빌라"였다. 위치는 올롱가포에 있다. 리조트 같은 규모였고, 우리 학교 학생 외에도 다른 대학교 학생,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위해 방문해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다. 숙소 건물은 크게 2개가 있었고, 우리 대학은 그 중 한 건물의 한 층 일부를 사용했다. 방 내부에서는 와이파이와 데이터가 잘 되지 않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비로 나와야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식당에서는 한식 위주로 음식이 나왔고, 숙소 앞에는 큰 수영장이 있었다. 파견 초기에는 수영장 물이 조금 더러운 편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여 파견 중후반쯤 되었을 때는 항상 깨끗한 물이 유지되었다. 왜 처음부터 청결하게 유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수업	제일 처음 가서 하는 일은 레벨테스트를 보는 것이다. 첫 날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각 과목(listening, reading, vocabulary 등)별로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재와 선생님을 배정해준다. 한 학생당 총 7명의 강사가 배정된다. 수업은 Toeic speaking, face to face, MMC, Reading, Vocabulary 과목이었고, 토익스피킹 강사 1명, 페이스투페이스 1명, mmc 1명, reading 2명, vocabulary 2명의 강사가 배정되었다. 그 중 토익 스피킹과 face to face, MMC는 그룹 수업이었고, 우리는 4명 1그룹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그룹수업은 같은 그룹임) 토익 스피킹 수업은 해커스 토익 스피킹 교재를 사용하며, 파트별로 함께 공부하고, 한 명씩 질문에 대답해가며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루에 2시간의 시간이 있었다. 어떤 형식으로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배울 수 있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수업은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를 보고 강사와 함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일종의 토론 그룹수업이다. 교재 진도를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닌 강사와 학생 간 자신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MMC 수업 역시 그룹 수업이다. 이 수업시간에는 강사와 함께 영상을 보고 영상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생각을 나눈다. 영상은 주로 상업광고와 뮤직비디오이다. 또한 이 수업시간에는 파견 중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된다. 파견 마지막 주에 mmc festival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festival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하는 영상 주제는 강사가 지정 해주며, 상업광고 하나와 뮤직비디오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만든 영상을 갖고 mmc festival 시간에 다른 그룹들과 다 함께 상영회를 하며 상장과 상품을 나눠 준다. Reading 수업은 1대1 수업으로 진행되며, 2명의 강사가 배정된다. 따라서 책의 목차를 절반으로 나누어 1-15챕터까지 1명, 16-30챕터까지 1명 이런 형식으로 배정된다.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진행된다. 학생이 교재 진도를 열심히 나가며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해주며, 교재 각 챕터별 주제에 대하여 프리토킹 위주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수업을 원한다면 그렇게 진행해준다. Vocabulary 수업 역시 Reading 수업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교재가 다르다. reading 수업은 읽고 정보를 파악하는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라면, vocabulary 교재는 단어를 보고 뜻을 파악하는 위주의 교재이다. 마찬가지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맞춰 진행된다.
필드트립	기본적으로 매주 2개의 activity 활동이 있다. 하나는 평일에 진행되는 group activity 활동으로 첫째 주에는 아이스브레이킹, 둘째 주에는 릴레이 게임, 셋째 주에는 drawing&tell 넷째 주에는 체육대회로 진행되었다. 또 하나의 activity는 주말에 이루어진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다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는 activity 활동으로 워터파크, 요트 투어, 트래킹, 영화관람, 기념품 구매를 위한 대형 쇼핑몰 방문 등이 있었다. 다만, 내가 파견갔을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지막 weekend activity가 변경되어 쇼핑몰 방문은 진행하지 못했다. 모든 activity 활동은 파견 기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요금은 없었다. 다만 기념품 구매와 같은 경우는 개인 사비가 필요하다. 또한, 워터파크와 숙소 앞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영복이 필요하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Fun Friday가 진행된다. 매주 다른 주제가 선정되고 우리가 있는 4주 동안의 주제는 rainbow, 복고, 파자마였다. 주제에 해당하는 복장을 입고 와서 함께 수업 듣고, 사진 찍고 하는 날이 fun Friday이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갔기 때문에 비교적 날씨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현지 기준으로 많이 더운 편도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한국인 기준으로는 초여름 혹은 그 이상의 더운 날씨였다. 또한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로 챙겨야 한다. 또한 낮과 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약, 얇은 겉옷은 반드시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안전	우리가 머물렀던 지역은 필리핀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한다. 따라서 안전 부분에 있어 위험했던 부분은 경험하지 못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에어컨은 잘 나오는 편이었고, 벌레도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모기와 개미가 제법 있었다. 따라서 벌레약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간혹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복도나 로비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하고 숙소 내에서 금주, 밤 10시 점호 이외에는 큰 규칙은 없다. 점호 역시 10시에 인원체크를 하고 숙소 외부로 나가지 못할 뿐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v) 기타 () 주로 아침, 점심은 숙소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외부에 나가서 사 먹었다. 학교 식당에서는 항상 한식이 제공된다. 아침에는 토스트와 밥이 교대로, 점심은 한식, 저녁 역시 한식으로 제공된다. 다만 요리사가 필리핀 사람이다 보니 메뉴는 한정적인 편이다. 맛은 괜찮은 편이다. 따라서 필리핀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사먹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식당을 추천받거나 개인적으로 미리 알아가서 4주 동안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다. 음식 값도 한국의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니 매일 한끼씩 밖에서 사 먹어도 큰 부담은 없었다.
교통	교통은 크게 지프니, FB, 택시, 트라이시클의 4종류이다. 택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택시이며,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에 좌석을 연결해서 최대 3명까지 앉을 수 있다. 지프니와 FB는 우리나라의 버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지프니는 최대 15명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고 색깔 별로 노선이 정해져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개념이 아닌 사람이 다 차면 출발하는 개념이다. FB 역시 지프니와 비슷한 개념이나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불한다면 승객이 다 타지 않아도 출발이 가능하고 숙소에서 시내로 나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이다. 최대 17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기념품&식비	500달러	
클락공항 공항세	600페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필요
항공료	690,000원	
합계	약 1,3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영어공부를 조금 하고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가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영어를 잘 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을 간혹 했었습니다.

또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슬리퍼, 샌들, 운동화 모두 한 켤레씩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슬리퍼나 샌들, 많이 걸을 때는 운동화를 번갈아 신을 수 있도록.

짐(옷, 수건 등)은 여유 있게 가져가시되 2-3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돌아올 때 기념품 때문에 캐리어 무게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첫째 주에는 안 쓰던 영어를 하루 종일 사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점차 적응되면서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처음엔 영어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대답을 한글로 생각하고 다시 머릿속으로 번역해서 말을 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면서 이런 과정 없이 영어를 듣고 바로 이해되는 내 자신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내 생에 첫 해외어학연수였는데, 너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

또한 파견 지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어서 헤어지는 과정이 힘들었다.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 종일 함께 했기에 많은 정이 들었고, 그래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Fun Friday 컨셉사진



수빅베이 선셋

STUDENT'S CLASS SCHEDULE					
NAME(Passport)	KIM DONGCHAN		SOON CHUN HYANG UNIVERSITY		
ENGLISH NAME	RICHARD		ELCAP – Winter 2020		
*** 4 Weeks (Intensive)					
TIME	CLASS	BOOK	TEACHER	ROOM	REMARKS
08:00 – 08:50	G	TOEIC SPEAKING	T. MARIJU	GC 1B	
09:00 – 09:50	1:1	COLLINS PRE INT	T. JEAN		UNITS 1-15
10:00 – 10:50	1:1	COLLINS PRE INT	T. KHALI		UNITS 16-30
11:00 – 11:50	G	TOEIC SPEAKING	T. MARIJU	GC 1B	
01:00 – 01:50	G	MMC	T. ALDEN	GC 2E	
02:00 – 02:50	1:1	EFL PRE Int	TL LEONARD		SEC 1-2
03:00 – 03:50	1:1	EFL PRE Int	T. NIKKA		SEC 3-4
04:00 – 04:50	G	FACE2FACE INT	T. MAY	GC 2A	

수업시간표



숙소 전경



야경



마지막 날 단체사진